

“한국 산업·진로 콘텐츠 체험하며 세계 트렌드 확인”

동신대학교 영커사업단(전 RISE사업단) 글로벌인재허브센터가 국제학부 소속 외국인 유학생들의 글로벌 산업 이해도와 전공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8일 동신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유학생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과 미래 산업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학생 70여명은 AI·디지털 전환, 기후·에너지, 진로·미래산업, 지역특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미래 산업과 기술, 산업 동향을 파악했다.

동신대 글로벌인재허브센터 외국인 유학생 70여명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서 미래 산업 현장 체험학습

특히 AI·디지털존, 기후·에너지존, 진로탐색존, 지역특화존 등을 둘러보며 첨단 기술과 산업의 변화상을 직접 경험했다.

또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성, ESG 가치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사례를 접하며 직무 역량과 진로 설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유학생은 “한국 의 전시·컨벤션 산업 운영 방식과 미래세대를 위한 산업·진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산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

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재민 국제교육원장(영커사업단 글로벌인재허브센터장)은 “유학생들이 전남의 대표 MICE 시설을 방문해 전공과 연계한 현장 체험을 하고 AI·디지털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며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 글로벌인재허브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 역량 강화와 지역정주 기반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전공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동신대 글로벌인재허브센터 외국인 유학생들이 글로벌 산업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신대학교

광주문화재단,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성료

‘유아 눈높이’ 맞춘 무대·전 회차 매진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최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광주유아문화예술교육유관기관협의회 공동협력사업으로 유아예술공연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공연은 이틀간 2회차씩 총 4회차로 운영됐으며 전 회차 무료로 진행됐다. 유아 및 보호자 1600여명이 현장을 찾아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다.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는 지난 2023년 기획·제작을 시작으로 올해 4년차를 맞은 이마서비 유아극이다. 연극·무용·샌드아트

트 영상이 결합된 형식으로, 관람객인 유아들이 공연을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각과 상상으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장에는 포토존 운영과 드로잉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돼 유아와 보호자가 풍성한 문화예술 경험을 누리기도 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광주환경공단,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교반기 실증 추진

한국환경공단·이에스피씨와 협약 체결

10년간 약 22억원 경영개선 효과 전망

광주환경공단이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교반기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 이에스피씨와 하수처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안전선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광주환경공단 제2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에 기존 수중 교반기 대신 BLDC모터와 각도조절 유선형(판공형) 임펠러를 적용한 입축 프로펠러형 교반기를 설치하고, 스마트 운전 시스템을 도입해 교반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 10억6365만8000원이 투입되며, 사업비는 국고보조 70%, 민간부담 30%로 구성된다. 공단은 연말까지 교반기 설치와 시운전, 데이터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전력비 약 1억 1528만원을 절감하고, CO₂ 연간 386t, eq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10년간 경영개선 효과는 약 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생물반응조 내 부유물질 균질화를 통해 질산 제거 효율을 높이고, 약취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한국환경공단, 이에스피씨와 하수처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협약 체결과 안전선포식을 가졌다.

사진제공=광주환경공단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첨단 교반기 기술을 현장에 실증함으로써 하수처리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단

소중립 실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여수해경, 기름·오염물질 저장시설 점검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대규모 기름저장시설과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대응태세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재과 김한규 국장이 직접 참여해 GS칼텍스 여수공장과 월드에너티를 방문,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의 운영 상태를 확인했다.

점검단은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현장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름 저장탱크와 이송배관 등 주요 시설물의 결합 여부를 점검했다.

또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확

인했다. 이어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는 저장시설을 찾아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설비의 관리 실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주 청년정책 활성화·성평등 문화 확산 ‘맞손’

여성가족재단·청년일자리스테이션, 일자리 연계 협업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대표 백경호)이 최근 ‘광주지역 청년정책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광주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가족·청소년·청년이 참여하는 직무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협업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정책 연계·성평등과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여성·가족·청소년·청년이 참여하는 직무역량강화 및 심리정서 활력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협력 운영, 성평등과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활동, 청년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예방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공간 활용 등을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청년들의 공공기관 실무 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오는 12~13일 광주여성가족재단 북카페 등에서 ‘직무탐구·스펙업, 공공기관 실무어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틀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년들은 여성·가족·복지분야 공공기관 탐방 및 직무 탐구 시간을 갖게 되며, ‘도전아빠공든벨’이라는 광주여성가족재단 행사 실무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청년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오늘날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직장을 구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동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과제가 됐다”고 전제한 뒤 “이번 협약이 광주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활성화 기반 마련과 성평등 문화 확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경호 대표는 “청년들이 지역 공공영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오른쪽)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대표 백경호)이 최근 ‘광주지역 청년정책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여성가족재단

역 정책 연구와 사업 관련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기르고, 지역에서 성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번 협약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를레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지원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4월 24일)

48년생 자녀로 인한 근심수가 있을 것
60년생 절대로 안 되겠다
72년생 결국 후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84년생 시댁이나 배우자가 도와준다
96년생 귀하의 계절이 왔다
51년생 귀하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63년생 손재수 있으니 금전 거래를 하지 마라
75년생 인도 보고 똥도 따니 잘 풀려나겠다
87년생 선택하기가 남김만 임장이 되겠다
99년생 뜻하지 않던 돈이 생긴다
54년생 자녀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66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야 한다
78년생 사소한 일로 흥분하지 말고 신중하라
90년생 천성연분 소개팅 있을 것
57년생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69년생 고생한 일이 나에게 돌아갈 수 있다
81년생 성과에 흥분 취해졌다
93년생 일에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라

49년생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고민이다
61년생 내내 행운을 가져다 줄 것
73년생 모험적인 투자도 성공을 거둔다
85년생 작은 소망은 이뤄진다
97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하다
52년생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유를 들어라
64년생 모든 일이 쉽게 이뤄지니 이익이 있다
76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행운이 따른다
88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55년생 애꿎은 사람과 잘 지내도록 하라
67년생 소리대로 풀어나가면 발전한다
79년생 많은 이득이 생기는 계약이 성사 될 것
91년생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능력을 보이라
58년생 일이 의외로 잘 풀리게 되는 길목이다
70년생 전혀 실속이 없으니 빨리 청산하라
82년생 남자의 도움으로 전화위복 되는 운세
94년생 서서히 풀려 나갈 것

50년생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도 필요하다
62년생 돈소문이 사실로 변할 수 있을 것
74년생 오랜만에 시원함을 맛본다
86년생 제3자의 다툼에 가담지 마라
98년생 희망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리라
53년생 괜히 나서다가는 손해보는 운세
65년생 귀하 것이 아니니 넘겨줘라
77년생 우러 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89년생 건문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아라
56년생 인간적인 관계 설정과 교감이 먼저다
68년생 구술도 같아야 광이 난다
80년생 지금의 거래는 이뤄지기 어렵겠다
92년생 사귀기 만한 이성 아니면 사귀지 않는다
59년생 조연이 절실한 처지
71년생 열정을 쏟은 가운데 결실이 보인다
83년생 기회가 찾아 오면 재빨리 포착하라
95년생 친구가 오려려 해를 준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포랑이
팜
친수이
돼지